〈학회보고〉

학회지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와 과제

편집위원회

우리학회에서는 본 학회명칭을 한국수문학회에서 한국수자원학회로 변경하면서 학회지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응답서는 지난 5월중에 우편으로 50장이 접수되었고, '95 수자원 학술발표회의시 35장이 추가되어 총 85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회원들의 직업별 구분은 대학교수(43%), 연구원 (25%), 공무원이나 공사에 근무(14%), 엔지니어링 회사(12%), 대학원생(6%) 순이었습니다. 학회에 가입한 기간별로는 2년이하 26%, 2~5년 25%, 5~10년 24%, 10년 이상이 25%로서 응답한 회원들의 학회 가입기간은 2년 이하부터 10년 이상까지 비교적 균일하였습니다.

학회지 전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대단히 만족 6%, 만족 63%, 조금불만 31%, 대단히 불만 0%로서 전체 응답회원의 69%가 학회지 전반에 관하여 만족함을 나타낸 반면 31%가 다소 불만스러움이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불만스럽다고 응답한 회원은 없었습니다.

회원들이 제기한 불만의 원인별로는 일반기사 14%, 논문 21%, 일반기사와 논문 모두 14%로서 일반기사와 논문 자체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고(49%), 그 다음으로 학회지의 외양(32%), 편집위원회에 대한 불만(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제안된 의견들로는 논문집과 학회지의 분리, 실무적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기대, 그림의 선명도 향상, 논문내용의 과도한 수학공식 의존 지양, PC통신 가입을 통한 정보교환 등이 있었습니다.

일반기사의 내용중 가장 관심있게 보는 내용으로는 기술정보(33%), 연구동향(32%), 기획특집(20%), 권두언/논단 등(6%), 공사보고(5%), 기타(4%) 순으로서 시사성이 있는 기술정보나 연구동향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일반기사에 대한 불만사항으로는 집필진이 다양하지 못함(65%), 질과 분량등 내용이 충실치 못함(27%), 내용이 너무 어렵고 재미없음(8%) 순이었습니다.

학회지에 개재된 논문에 대한 관심도는 거의 모든 논문을 읽음 16%, 관심있는 1~2편만 읽음 72%, 대충 훑어봄이 12%였으며, 전혀 읽지 않는다는 응답은 없었습니다.

논문에 대한 불만으로는 토론난이 없음(35%), 논문의 질(29%), 논문수가 너무 적음(22%), 논문심사제도(14%) 순이었습니다. 논문심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으로는 경직된 평가, 심사기간의 과다소요, 심사위원 실명제 필요, 논문심사비 폐지, 논문채택 주제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논문 전반에 대한 제안 사항들로는 분량 증면, 수자원 관련 논문 증편, 토론 도입, 논문형식과 그림수준 향상 등이 있었습니다.

학회지 개선을 위한 편집 방향에 대해서는 일반기사와 논문의 분철 발간(39%), 논문은 물론

일반기사의 심사기준 높일 것(35%), 학회지의 외양 개선(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편집개선을 위한 의견들로는 국외의 최근 연구 동향 소개, 기술강좌의 연재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회지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들로는 논문 편집 개선(6명), 학회지 분철 및 분량 증가(4명), 논문의 다양성/실무성/시사성 등 논문내용 개선(3명), 토론난 등 대화의 창구 설치(3명), 학회지 발행 횟수 증가 및 발행 일자 엄수(3명), 회원들의 참여도 향상(2명)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설문에 응답해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조사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회지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95년도에 새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칙 및 투고규정,원고 작성 방법들에 대한 보완을 하였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4월호(pp.186~195)에 게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논문에 대한 토의를 제도화하였고, 원고의 원도를 필자가 원하면 원색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회지는 우리학회의 간판이요, 내용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으므로 학회의 재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학회지를 고급화하는 방안을 학회임원들의 지원하에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 입니다. 또한 일반기사의 다양화, 내실화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연구논문으로 인하여 현 학회지를 일반기사 위주의 학회지와 연구 논문집으로 각각 분리 발간하거나, 분철 발간하는 방안도 강구중입니다. 또한 국제화의 움직임에 순응하여 우리학회 논문집이 국제학술지로 인정받기 위한 방안도 6월초 편집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 된 바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들은 우리 학회회원들의 단합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격의없는 충고와 협조를 기대합니다.